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름 이야기

마음 착한 영재, 예술성이 풍부한 성재, 활달한 정재, 귀염둥이 막내 모세까지 보기만 해도 든든한 사형제를 10년이 지나 다시 만났다. 2002년 5·6월호 홀트소식에 소개될 땐 삼형제였는데 이제는 짝수도 딱 맞는 사형제가 된 것. 3살 영재는 힘찬 미소년으로, 1살 쌍둥이 형제는 능글한 형제로 거기다 동생까지 생겨 의젓한 형으로 자리 있었다. 보석처럼 귀하고 밝고 예쁘게 지란 형제의 또 다른 10년 후가 궁금해지는 만남이었다.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 /Studio H2

Contents

- 02 Holt Letter
졸업 그리고 입학
- 04 입양, 우리품으로 1
아기에서 소년으로, 다시 만나 반가운 사랑의 집 사형제
- 06 입양, 우리품으로 2
입양의 날 기념식&"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 08 특집
입양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 12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정민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 14 기획
사랑의 발자취 50년을 간직한 그곳,
홀트일산복지타운 명소를 찾아!
- 18 무지개 패밀리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다녀왔어요!
- 22 아름다운 동행
"나눔은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가장 쉬워집니다"
- 24 나눔이웃, 나눔기업
봄날 햇볕보다 사랑으로 더 뜨거운 나눔 사랑, 특별한 후원
- 26 이웃과 함께
'으랏차차 다시 뛰자 인생이막!' 하남실버인력뱅크
- 28 Holt News
- 32 Thanks to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66호 · 계간 발행일 | 2012년 6월 18일 발행일 | 말리홀트 편집인 | 민경태 발간
위원 | 이춘근(자원개발실장), 신미숙(후원팀장), 홍미경(홍보팀장), 성경희(아동양육팀장),
최안여(국내입양팀장), 김재현(하남시복지관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30 주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합정로 19번지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
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시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 유창기 이사(가톨릭교신문사 사장) | 이혜경
이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임부웅 이사(세이CS 아시아
책임자)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
사 대표) |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홍현국 감사(공
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미혼모자식전문 T.080-332-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4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부천사무소 www.bcholt.or.kr T.032)322-2797

울산사무소 www.ulsanholt.or.kr T.052)243-9671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 일산요양원
T.031)914-6631.6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2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4

입양가정지원센터 T.02)322-8104
홀트아동발달지원센터 T.053)627-8875
전주영아원 T.063)222-1559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 · 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사랑뜰 www.holllove.or.kr T.053)756-0183
마포로클럽 T.02)322-3325
대전로클럽 T.042)583-4006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림센터) T.070)8244-7019

졸업 그리고 입학



2012 입양가족사진 동영상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수상작 · 김현수(우수상)

엄마 아빠의 귀하고 귀한 아들 윤일아~

우리 예쁜 아가가 엄마, 아빠에게 온지도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입양이란 이름으로 출산을 선택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안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빠는 입양이 잘 안 되는 아이를 입양하자며, 성별은 아들, 신생아 아닌 연장아, 혈액형도 우리부부와 달랐던 날 선택했단다. 그때만 해도 이 엄마는 아빠의 야속함에 토라져 있었는데, 너무 우습지? 너와 맞선을 보던 날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할까? 밝은 햇살이 째~~악 내렸다고나 할까? 남들은 추위 동동거리던 2006년 2월 10일은 엄마 아빠 생애에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따뜻한 날이었지. 25개월의 아장아장 걸으며 곧잘 넘어지던 날 만났던 때가 엇그제인 것만 같은데, 네가 벌써 취학통지서를 받고 초등학생이 된다는 사실에 엄마 아빠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단다.

네가 처음 어린이집에 다니던 날~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엄마와 소풍을 가던 날~ 곧 입학할 초등학교 입학까지 네가 아니었음 못해봤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준 우리 윤일아에게 너무 감사해... 부족한 엄마 아빠에게 외준 사랑스런 아들 윤일아, 엄마 아빠가 많이 부족하지만 욕심내지 않을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처럼 밝게 자라줘~!!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 사랑할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아기에서 소년으로, 다시 만나 반가운 사랑의 집 사형제

10년이 지나 다시 만난 반가운 아이들

‘응애~응애’ 사랑스런 음악소리와 함께 아이들 한명 한명의 추억이 담긴 영상이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가족입니다”란 제목의 UCC에는 가슴으로 낳은 네 명의 사랑스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홀트입양가족사진 동영상공모전’ 동영상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주재희 씨 가족. 알고 보니 2002년 홀트소식에 소개되었던 입양가족이었던 것.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 17개월의 영재는 13세가 되었고, 3개월의 성재·정재는 11세. 그리고 동생 모세(8세)도 생겼다. 훌쩍 자란 사형제는 보기에도 든든할 만큼 예쁘게 자라주었다. 영상 속의 사형제들이 너무 궁금해 십년 전 기억을 살려 다시 남양주로 향했다.

우리 애들은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영재는 마음이 따뜻하고 맑고 깨끗해서 천사 같아요. 동생들한

테 화를 내 본적도 없고 저희(부모)한테 말대꾸를 한 적도 없어요. 담임선생님도 (영재는)정말 천사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성재는 감수성이 좋고 예술성이 높아요. 디자인이나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해요! 여자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얼마 전에 여자 친구랑 커플링도 했는데 다른 여자 친구가 질투해서 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쌍둥이라 하더라도 정재는 달라요. 성격이 활발하고 정감이 있는 아이예요.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도 아주 잘해요. 모세는 뭐라 표현해야 될지(웃음), 모세는 기계조립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형아들이 많아서 자기가 대장노릇도 못하니까 불만이 많은 듯해요. “나만 동생이 없잖아!”하고 귀여운 투정을 많이 내죠. 나름 장난꾸러기예요.”엄마 주재희 씨는 네 아이 이야기만으로도 신나고 즐거운 듯 보였다. “우리 애들은요”란 짧은 말속에 아이들을 향한 엄마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다.

“저희 형제를 소개합니다”



엄마! 난 엄마 배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왔지?

“모세가 6살 즈음 유치원에서 결혼프로젝트란 수업을 했어요. 그날 제 배를 사랑스럽게 문지르면서 ‘모세가 엄마 배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영양을 쭉쭉 먹고 태어났지?’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입양이란 단어는 자주 말하고 입양가족모임도 갔었던 지라 지나쳤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명확히 ‘입양’에 대해 말해주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네 아이를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너희 모두를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입양했다’고요. 아이들은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는 ‘그럼 친엄마는 누구냐, 어디서 우리는 왔느냐’며 묻더라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늠름하고 멋진 모습으로 자라서 친엄마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 후 하루 이들은 아이들이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의 활발한 모습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왔어요!” 네 아이들은 ‘입양’을 듣고 자라서 인지 가벼운 감기처럼 잠시 앓고 넘어간 듯싶었다. 가끔 영재가 “20살 되면 엄마 만나게 해 줄 거야?”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한다고.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이영중(53), 주재희(55)씨는 큰 딸이 스무 살 무렵 첫 아이를 입양했다. 그리고 2살 터울로 성재·정재, 모세를 입양했다. 지금 큰 딸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영어를 좋아한다는 영재에게 “너도 커서 누나처럼 외국으로 갈래?”라고 물으니, “엄마가 허락하면 가고 싶어요!”라고 수줍은 듯 대답한다.

이 말을 들던 주재희 씨가 “엄마 없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지?”라고 되물으니 영재가 잠시 생각하다 “아니~ 못 할 거 같은데!”라며 엄마를 향해 웃는다. 한번은 모세가 “엄마는 왜 할머니 같아?”라고 묻기에 “왜? 엄마 나이가 많아서 싫어? 젊은 엄마로 바뀌 줄까?” 물었더니 “아니!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답했단다. 아들들에게 엄마 주재희 씨는 나이도 외모도 혈액형도 상관없는 ‘최고의 우리 엄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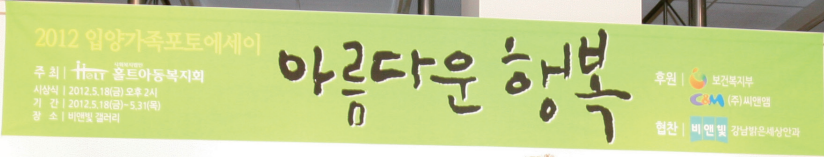
주재희 씨와 이영중 씨 모두 자녀들이 많아 특별히 어려운 일보다는 즐거운 일이 많다고 전하며 다만 나이 많은 부모다 보니 학교 공부를 봐주는 게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가족입니다

생후 5개월에, 생후 17일, 생후 12일에 만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었다. 똑같이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TV를 보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축구를 하고, 토닥토닥 거리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동무를 한다. 큰형한테 대들기도 하고 쌍둥이라 싸우기도 하고 나만 동생이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투덜대기도 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아빠라며 달려와 안긴다.

굳이 다른 가정과 차이를 찾아야 한다면 ‘입양’이란 단어 하나만 걸릴 뿐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말 그대로 함께 아니면 못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한나**

글_김은희·홍보팀



제7회 입양의 날 기념식

입양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사회복지회 주관 제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입양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라는 주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5월 11일' 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입양가족과 관계자로 가득 메운 자리에서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입양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푼 조병국 전 홀트부속병원 원장(현 홀트일산복지타운 의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또한 30여년 사회복지를 펼쳐 온 김대열 홀트기획관리실장에게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등 입양공로자 28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의 날을 기념하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강남밝은세상안과 비엔빛 갤러리'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비엔빛 강남밝은세상안과의 후원으로 다중이전시회를 개최했다.

인형전은 북촌다중이인형연구회의 7명의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었다. 또한 입양의 날 기념행사는 서울을 포함 전국 홀트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1 조병국 전 홀트부속의원 원장(현 홀트일산복지타운 의사)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2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김대열 기획관리실장. 3 다중이 인형전.



대상, “벚꽃을 즐기는 가족”

2012 입양가족
사진 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우수상, “에스더의 성장”

홀트아동복지회와 보건복지부, (주)씨앤엠이 후원한 2012 입양가족 사진 동영상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이 5월 18일(금) 오후 2시 비엔빛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올바른 국내입양문화 정착과 긍정적 사회인식을 높이고자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 전국 공개입양가정 100여 가정이 참여하여 총 사진 141점과 동영상 28점이 응모, 공모전 개최 이후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총 상금 720만 원이 주어졌다. 사진과 동영상부문 심사를 맡은 조세현 사진가와 송재호 홍보대사도 참여 수상 가족들을 격려해 주었고, 특히 조세현 사진가는 2008년부터 5년째 재능기부로 심사를 맡아주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행복’ 사진전은 강남밝은세상안과 협찬으로 비엔빛갤러리에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전시되었다. #HHT



사진

- 대상(상장 및 상금 50만 원) 조익제 “벚꽃을 즐기는 가족”
- 우수상(상장 및 상금 20만 원) 김현수 “졸업 그리고 입학” / 정재호 “세상에서 제일 편한 베개” / 서진택 “에스더의 성장” / 오승주 “기쁘지 아니한가?”
- 입상(상장 및 상금 10만 원) 박중하 “연리지 가족” / 박기호 “행복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자” / 양윤정 “여기서 코~ 잘까” / 이동현 “아빠 등은 최고의 침대” / 전세희 “아름다운 화해”

동영상



- 대상(상장 및 상금 200만 원) 김한수 “우리 달라도 너무 달라”
- 우수상(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이용호 “입양. 가슴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 주재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가족입니다.”
- 입상(상장 및 상금 20만 원) 정선자 “가슴으로 낳은 4남매” / 윤동현 “세은 이네 여섯 식구의 입양이야기” / 송영찬 “넋은 적적해서 ㅋㅋ” / 유익창 “우리에게 찾아온 천사 하윤이이야기” / 최승태 “경이로운 만남 입양” / 이정훈 “벤자민 가족을 소개합니다” / 박진영 “아빠하고 나하고”

입양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입양은 아동복지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입양역사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전쟁 이후 요보호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입양복지사업 시작도 창립자 해리홀트 부부가 1955년 전쟁고아 8명을 입양하면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 입양관련 법(민법 제외)은 고아입양특례법(1961) 시작으로 입양특례법(197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으로 개정되었고, 2012년 8월 입양아동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양은 출산과도 같은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변화된 입양 절차 및 현재 국내 입양현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념과 내용 ●

입양숙려제

친생부모가 아동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입양숙려제’를 두었다. 이는 친생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최소 기간(7일)동안 직접 양육시 지원받는 내용을 포함 충분한 상담시간을 제공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숙려제 기간 동안 아동과 친생부모의 거처 문제, 아동 양육에 대한 보호 모호성, 의료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즉각적인 대처 문제 등이 친생부모와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가정법원 허가제 및 양부모 자격 강화

이번 특례법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입양기관은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하고, 입양 진행에 있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부양 능력과 범죄 기록 등을 심사하여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 전 · 후 국내입양절차

	친생부모 입양동의	양부모 결연	입양의 성립	입양의 효과
종 전	제한없음	입양기관의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	입양신고(시군구)	명시적 규정없음
변 경	입양숙려제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한 입양동의만 허용	▶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 양친될 자에 대한 아동 학대 · 성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 입양전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 입양허가(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 신고	▶ 입양아동에게 친양자 지위 부여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부여

입양허가제를 통해 입양된 양친과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민법상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친양자의 성본도 양친의 성본을 따를 수 있으며, 친생부모와 양자와의 친자관계는 단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타 주요 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내입양우선추진제(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 우선 추진)를 명시하였고, 입양이 성립된 후

(국내 입양의 경우) 1년 동안 입양아동과 양친의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입양기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부분도 새로 개정된 법에 수록된 내용이다. 또한 입양인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법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번 개정으로 입양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 · 심리적 안정 속에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입양, 가슴으로 넣은 사랑

입양의 날 기념식 때 입양부모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탤런트 신애라 씨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기도를 한다고 전했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만날 수 있었을까”,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리고 두 딸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친부모님에게도 감사기도를 한다고 했다.

이런 기도는 비단 신애라 씨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입양부모들의 기도였다. 모든 입양부모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같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이다. 입양이란 단어 차이일 뿐 입양은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입양을 가슴으로 넣은 사랑이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입양속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되는 입양특례법

현재 우리나라 입양은 민법과 앞으로 시행될 입양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후자로, 양자될 아동을 보호하고 양친이 될 부모 자격을 심사하여 입양가정의 안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의 큰 중점은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로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 강화와 입양속려제, 가정법원 허가제, 양부모의 자격강화, 입양 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양자 지위: 민법상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

실제 입양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법에 제시된 양부모 조건에서 나이(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나 경제적인 여건(아동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가정, 건강상의 부분(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가정) 등에 관한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다. 예로 신생아 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의 나이가 50대 후반이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상의 부분이 모호한 경우 등 입양적격 판단을 내리기가 고민스럽고 부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고민과 책임을 그래도 같이 담당해 줄 법의 울타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큰 힘을 얻는다.

또한 양부모의 자격을 강화(범죄기록 조회 등)하는 것을 통해 더욱더 안정된 가정에 입양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부여해 주니 이런 부분은 개정입양 특례법의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입양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화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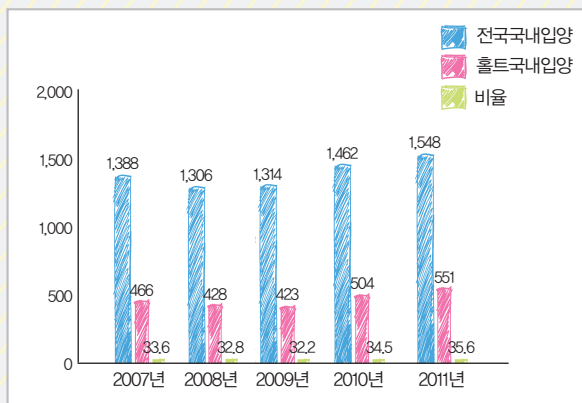
국내입양 현황으로 본 우리나라 입양문화

현재 국내입양은 지난해 1,548명, 국외입양은 916명이었다. 2007년 이후 국내입양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입양기관들의 노력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 수를 넘어서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상담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 입양의 35.6%를 차지할 만큼 국내입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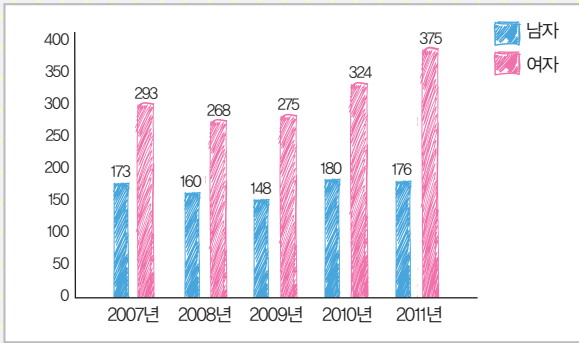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입양은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한 남아, 비밀입양이 선호되었으나 1990년부터 입양은 가족화목을 위한 입

● 전국 국내입양 현황

구분	전국국내입양	홀트국내입양	비율
2007년	1,388	466	33.6
2008년	1,306	428	32.8
2009년	1,314	423	32.2
2010년	1,462	504	34.5
2011년	1,548	551	35.6



● 국내입양 성별 현황



● 국내입양 진행방법 현황

구분	비밀(부부만)	제한공개	공개
2007년	38(8.2%)	162(34.7%)	266(57.1%)
2008년	28(6.5%)	154(36.0%)	246(57.5%)
2009년	32(7.6%)	151(35.7%)	240(56.7%)
2010년	37(7.3%)	214(42.5%)	253(50.2%)
2011년	41(7.4%)	198(36.0%)	312(56.6%)

양에 대한 안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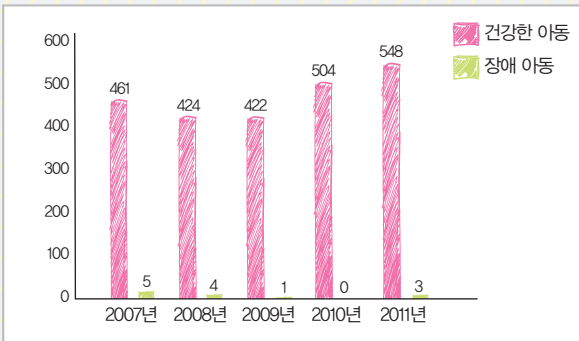
올 초 입양한 부부는 출산한 자녀가 태어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부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 자녀를 갖는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했고 자녀가 될 아이를 여느 예비입양부모와 달리 생부모 배경이나 혈액형, 외모에 관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입양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실제로 입양가정 찾기가 늦어졌던 6개월 된 여자 아이를 입양했다.

자녀가 있어 행복하다며 벌써 입양 후 두 번이나 홀트를 찾아와 자랑하고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입양을 연결한 후 뿌듯하고 가슴 벅찬 순간이 있기에 마음고생 가운데서도 상담사의 길을 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입양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입양 삼자인 친생부모와 아동, 입양부모 모두가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정부와 입양 전문 기관은 협력하여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입양특례법 개정이 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실전 업무를 담당해 온 입양 기관의 목소리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입양 기관 역시 개정된 입양특례법(입양 허가제)에 있어 입양기관으로서 자리 매김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친생부모와 입양부모, 그리고 아동을 대변하여 이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나가야 할 것이다. [http://www.kia.or.kr](#)

● 국내입양 아동 건강상태 현황



〈홀트아동복지회 자료〉

양, 공개입양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여아선호가 70%일 만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고 또한 건강한 아동을 선호하여 아동들의 가정 찾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적 측면을 강화한 정책과 정부에서도 장애아동과 의료 문제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회적 분위기 개선, 친가족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 특례법 시행 이후로는 비밀 입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만큼 공개 입

글 _김지영 사회복지사 · 국내입양팀



정민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홀트일시보호소 정민이가 더 미남이 되어 돌아왔다. 귀여운 웃음을 지을 때마다 함께 방울지었던 침도 우유를 먹을 때 함께 흘렸던 아픔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정민이가 말한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게요!”

장애도 예쁜 미남 아들 채정민

유독 추웠던 지난해 12월 겨울 작은 아기가 사회복지사 품에 안겨 홀트일시보호소로 왔다. 한 달간의 긴 입원 탓인지 외소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거기다 윗입술이 열려있었고 오른쪽 귀는 둥그랴게 말린 듯 한 장애를 갖고 있었다. 출생시 눈으로 보이는 구순열과 선천성귀의변형 외에도 탈장이 의심되고, 심방 중격 결손, 심실 중격 결손, 선천성 음낭수종이라는 병명이 정민이 의료기록에 적혀 있었다. 그 아기가 정민(가명)이었다.

정민이를 본 김정희 간호사와 보육 선생님들은 장애를 걱정하기 보단 “잘 먹고 잘 크면 돼! 입술은 수술해서 예쁘게 찾으면 되지!”, “정민이! 잘생겼네! 엄마들이 잘 키워줄게!”하며 씩씩하게 어린 정민이를 응원해 주었다. 그런 선생님들의 응원덕분인지 정민이는 바람처럼 잘 먹고 잘 자라주었다. 갈라진 입술 때문에 우유를 먹는 게 부족하거나 힘들어 하면 어쩔까 걱정도 했지만 의외로 잘 해주었다고, 물론 입술이 벌어지다 보니 우유를 먹을 때마다 공기를 흡입해 소화력이 떨어지고 숨을 쉴 때 소리가 나 잠을 자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린 아기 정민이가 잘 참아준 것이다. ‘나이스 보이’ 정민이는 성품도 온화해서 자고 일어나면 씩~ 어느 아기보다 더 큰(?) 미소를 선사해 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긱 웃어준다고, 이름보다 ‘미남아들! 미남아들!’ 이라 불러주는 선생님 덕택인지 정말 정민이의 장애까지도 너무 예뻐 보였다.

낳은 엄마와 일찍 이별하고 장애를 일찍 만난 아기

정민이는 미혼인 생모에게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뇌출혈 소견과 선천성 장애 때문에 한 달을 입원해 있었고, 그 후 4개월간도 의심되는 여러 질병들로 세브란스 소아심장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여러 과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정민이에게 병원은 집(홀트일시보호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머문 곳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 4월, 심장이 나 기타 의심되었던 부분들이 모두 정상적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딱 하나 간수치가 높은 것을 빼고, 그전 차후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구순열(입술갈림증) 수술을 받기로 했다.

아침 첫 수술

3월 마지막 주,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준비를 마치고 아침 7시를 넘겨 정민이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어린 아기들의 수술 전 공복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병원 측의 배려로 일찍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담당 간호사들의 배움을 받으며 수술실로 향하지 꼬박 3시간을 넘겨서야 정민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마취가 풀려 통증이 느껴지는지 얼굴을 찌푸리고 눈물을 떨어뜨리는 정민이에게 “아이고! 신통해라. 잘했어! 잘 참았어! 대견도 하지!”라며, 간병 위탁모가 가슴을 두들겨주며 위로 한다. 수술한 곳이 입술이다 보니 실컷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히잉~’ 새어나오는 울음만 들린다.

“예뻐지려고 아픈 거야! 조금만 참자!”며 위로해주지만 아직 생후 4개월, 부모 품에서 내려놓기가 가까울 만큼 사랑 받을 시기에 정민이는 홀로 아픔을 견디고 있었다.



진짜 미남이 되었어요!

정민이가 퇴원해서 왔다는 소식에 부리나케 1층 홀트의원으로 향했다. 진짜 여러 아기 중 모르고 스윽 스치고 갈 만큼 잘(?) 생겨진 정민이 얼굴에 깜짝 놀랐다. 생글 생글 웃는 미소에 ‘장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술결과가 좋아 보였다. 미남소리 듣더니 진짜 미남이 된 것이다. 8세가 지나 잇몸 수술은 한 두 차례 더하면 완벽해 진단다. 귀기형은 정상적인 귀가 완전히 성장한 14세가 되어야 외형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은 경과를 지켜보며 시간을 기다려야 한단다.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장애는 ‘장애’라고 말하기보다 ‘상처’라고 말하고 싶다. 상처는 약 바르고 시간 지나면 낫듯 정민이의 상처도 곧 치유될 것이다. 정민이의 예쁜 귀를 함께 찾아 줄 부모님만 만나면 정민이의 행복은 다시 그려질 것이다. 훗날, 정민이 스케치북에는 분명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동물원으로 놀러 간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 믿는다. 한글

글_김은희·홍보팀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희망이는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싼 장치를 제거했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부모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희망이는 나눔으로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02-331-7073~4

www.holt.or.kr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사랑의 발자취 50년을 간직한 그곳, 홀트일산복지타운 명소를 찾아!

녹음이 짙어지고 봄꽃 흐드러지게 핀 5월의 별 좋은 날, 일산 탄현동에 위치한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찾았다. 1955년 훈철고아 8명을 입양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랑의 실천은 1961년 현재의 부지 일산 탄현동으로 그 보금자리를 옮기게 된다. 홀트일산복지타운 50여년의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 역사를 간직한 명소들을 따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짚어 보자.



50년 사랑의 발자취 ① 홀트기념관

농장을 제외한 총 대지 4만여평 위에 생활동, 병원, 재활관, 체육관 등을 포함하는 15개 동의 건물들이 홀트동산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는 홀트타운.

이곳은 홀트일산복지타운과 요양원이 함께 있는 곳으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산실’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러한 홀트타운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곳을 찾아야 할까? 대답은 홀트기념관에 있다. 홀트기념관은 과거 학교와 교회를 겸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금의 홀트기념관으로 만든 것으로, 홀트의 연혁, 사업, 홀트 부부의 삶과 철학 등 총 5개의 테마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함께한 홀트의 건립이야기를 담았다.

현대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검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입구를 지나 기념관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메운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사진과 함께 “모든 아이들은 가정 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설립 이념이 눈에 들어온다.

너무나 당연하여 그 중요성조차 잊고 있던 사실, 입양을 꺼리는 우리나라 현실을 되돌아볼 때 그의 생각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테마에 따라 나눠진 공간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껏 잘 알지 못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의 발자취와 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자 이제 밖으로 나가 홀트타운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을 만나보자. 그 의미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한국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다 생은 마감한 홀트 부부의 묘소



홀트부부 묘소



홀트일산 복지타운



교회

홀트학교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홀트 기념관



총 57개의 테마로 우리나라의 입양 역사와 함께한 홀트의 건립이야기가 담겨있다.

말리 하우스



홀트 할아버지가 지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집.

말리하우스

‘집’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지친 몸을 누일 수 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食口)’가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을 우리는 ‘집’이라고 부른다.

홀트 부부는 홀트타운이 아이들을 위한 터가 되기 위해 가정 단위의 생활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소규모 단위로 숙소를 짓고, 자체적으로 숙식이 가능하도록 생활터전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 아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단층으로 건물을 지었으며, 문턱을 없애 출입이 편하게 하는 등 시설물 시공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많은 생활동은 재준공 되어 그 원형을 잃었지만 50여 년 전 이념은 그대로 남아,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가며 사는 삶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50여년 전 일산의 새로운 터를 건립할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집 한 채가 남아있으니 바로 ‘말리하우스’. 현재의 이사장인 말리 홀트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고, 설립자 해리 홀트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말리하우스와 나란히 위치한 생활동 앞을 지나며, 별 좋은날 때를 맞춰 나온 빨래들과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 이곳은 시설이 아닌 그의 설립이념과 닿아 있는 가정, 즉, ‘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홀트부부 묘소

홀트일산복지타운에는 한국의 어린이와 장애아들을 위해 헌신하다 생을 마감한 홀트 부부의 묘소가 있다.

그의 묘소로 오르는 길, 59세에 생을 마감한 홀트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59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오르며 가슴 한 칸이 숙연해 진다.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혼혈 고아를 입양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랑의 실천이 지금의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라는 사실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홀트아동복지회는 홀트 부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사랑의 실천을 위해 힘쓰고,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양문화를 바꾸기 위해 쉬 없이 달리고 있다.

그리고 홀트일산복지타운은 50여년의 역사가 깃든 지난 시간에 걸맞은 다양한 의미로 이곳을 거쳐간 이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있다. 공간 자체가 사랑의 의미로 닿는 곳,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친구’가 되며, 어떤 이에게는 ‘고향’이 되는 곳, 우리는 이곳을 ‘홀트일산복지타운’이라 부른다.



홀트일산복지타운 가족이 말하는 홀트는 다!

홀트는 **우리집**이다

조병국 의사선생님은 50여년을 넘게 고아들을 살피며 홀트부속의원 원장님으로 홀트 아이들의 주치의로 열정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홀트타운 의사로 봉사활동들 나누며 때론 어머니로, 때론 언니처럼 장애인들을 살뜰히 챙겨 주신답니다. "내가 돌본 아이들이 있는 이곳이 우리집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홀트는 **고향**이다

구동희(36, 지적장애 · 뇌성마비) 씨는 홀트타운의 브레인입니다. 컴퓨터와 독서를 좋아한 다내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친구와 이웃이 있는 홀트타운은 동희 씨의 고향입니다.



홀트는 **직장**이다

김영목(53, 지적 · 지체장애) · 백미화(43, 지적장애) 부부는 홀트타운에서 함께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닌 것도 모자라 같은 회사로 출퇴근합니다. 잉꼬부부이자 보호직업장의 없어서는 안되는 유능한 직원입니다.



홀트는 **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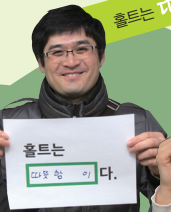
박지혜(44, 지적장애 · 뇌성마비) 씨는 미술사로 태어나 생후 3일 이후부터 홀트에서 자랐어요. 유년시절을 보낸 동호 씨는 보육선생님의 중매로 2001년 9월 결혼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홀트타운에서 홀트가 죽과 보내는 박지혜 씨는 "홀트에 오면 늘 친정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홀트는 **시트콤**이다



홀트는 **따뜻함**이다



홀트는 **Love**다



홀트는 **지팡이**이다



홀트는 **날개**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다녀왔어요!

“반가운 편안함, 익숙한 설렘”

Cambodia

최근 우리사회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어 홀트아동복지회도 전국 3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지역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한국 정착을 돕는 언어교육은 물론 상담과 교육, 문화체험 등 다각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들 마음 한편에는 고국,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대다수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형편 때문에 친정 나들이 한 번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에도 힘을 실어주며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홀트아동복지회는 '코리아그랜드세일 2012 다문화가정돕기 자선바자회'를 주최한 롯데백화점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를 진행하였고, 첫 친정나들이 팀으로 선발된 세 가정이 4월 6일 출발하였다. 결혼을 위해 떠났던 처음으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외가를 찾는 설레는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푹푹한 행복이 만든 청량한 열심

섬 소리아(Sun Soriya)

한국어 수업이 끝난 햇빛 좋은 어느 날, 첫 친정나들이를 다녀온 섬 소리아(Sun Soriya) 씨를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났다. 대화 나누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녀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깨끗이 사라졌다.



이제는 친정이란 말이 더 익숙한 곳

2008년 결혼 이후 첫 친정나들이, 섬소리아 씨에게 캄보디아는 태어나 자란 곳이었지만 이젠 친정이 됐다. 결혼한 이들에게 친정이란, ‘가족이 사는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들 한다. 같은 곳에서 살아도 그러한데 타국에서 사는 이들에게야 오죽할까. 낯선 한국 땅에서 이룬 가족과 함께 가는 친정은 말 그대로 설렘이었으리라.

“2008년에 결혼을 했으니 이제 햇수로 5년차네요. 문득문

득 고향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마음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었어요. 나고 자란 곳이라 ‘뭐 그리 반갑겠어?’ 싶었지만, 막상 친정에 가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먼저 와 있던 친구 덕분에 알게 된 한국. 그리고 그 덕분에 남편도 만나게 됐다. 인상이 참 좋고 사람도 착하고, 남편으로써 그만한 사람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남편을 보는



1 섬 소리야 씨 가족과
조카. 2 섬 소리야 씨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순간 들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생기기까지 그녀는 외로웠다고 한다. 우리말이 서툴렀기에 TV를 틀어놓아도 이해되지 않았고, 듣는 게 쉽지 않으니 읽고 쓰며 말하는 건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으리라. 그래서 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축복과도 같았던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곳

원하던 아이가 생기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란성 쌍둥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다보면 하루가 훌쩍 가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다. 한 아이는 품에 안아 우유 먹고 다른 아이를 누여 재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 키우는 일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아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더 든든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제는 제법 자란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이것저것 같이 하자며 손을 내미는 게 정말 좋단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그녀의 고향, 그녀의 친절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캄보디아 설날은 4월이다. 명절 음식 가득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정말 고향에 왔구나' 실감이 났다고. 후끈후끈한 날씨, 매일 먹던 음식, 매일 지내던 곳, 그 모든 것이 가족과 함께하니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그때를 기억했다. 아이들도 캄보디아의 소리야 씨 가족들과 살갑게 잘 지내서 무엇보다 기뻐했다고 했다.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삼촌이모와도 격의 없이 지내고, 캄보디아 말도 조금씩 배워 하는 걸 보니 역시 친절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이번 방문을 도와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친정에 있는 동안에는 좋으면서도 좋다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진 못했지만, 막상 일정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니 캄보디아에서 먹던 음식, 습도 높은 더운 날씨마저 그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챙겨주신다는 것도 마다했는데 괜히 그랬다고 후회하기도 했다.

“이만큼 그리워했던 줄은 몰랐는데 다녀오니 그 마음의 크기가 실감이 났어요.” 친정이란 그런 곳인가 보다.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그 존재감이 확 느껴지는….

섬소리야씨 부부와
쌍둥이남매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한국어 공부

한국에 살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소리아 씨는 예의 그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힘들지 않았어요”란다.

그러다 “힘들 다기 보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죠”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다름 아닌 쌍둥이 출산 때. 결혼하고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때가 출산 때라고 들었는데, 그녀도 마찬가지로였다. 대신 아쉬운 점이 있다며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테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꾸준히 해나가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 둘 셋을 키우면서 하루 한 시간 내는 것조차 대단한 의지력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한국어가 빨리 늘지 않으니 일할 곳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구요. 이런 지원센터를 찾는 것부터도 녹록치 않죠.”

꿈이 노력을 만나 이뤄낼 멋진 현실

다문화가정이라 불리는 가족의 테두리에서 그녀는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한국어는 캄보디아 말과 완전히 달라 배우기도 까다롭죠. 저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통역도 하고 싶고 번역도 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캄보디아어로, 그 반대로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처럼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이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친정나들이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나도록 실질적인 이야기도 전할 수 있을 테고요. 캄보디아 결혼 이주민들의 마음과 생각도 오롯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어 배운 지 어느새 1년을 훌쩍 넘겼다는 소리아 씨.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이뤄가는 게 한없이 행복하다는 그녀. 아이들이 캄보디아가 낯설지 않도록 친정에 좀 더 자주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HOIT**

글_문재연 · 재능기부봉사자



이슈를 만남 그리고 익숙함

스레이 나잇(Thor Sreynt)

언니가 먼저 한국으로 시집을 왔고, 뒤이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0년 10월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두 달 뒤 한국으로 와 가정을 이루었다는 스레이 나잇 씨. 아직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은 그녀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워서 남편 서재열 씨의 도움을 받았다.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지냈던 스레이 나잇 씨는 말 그대로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결혼하고 첫 친정나들이였으니 더 그랬으리라.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가기에 여러모로 신경 쓰였을 법도 하지만, 친정이라는 곳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잊고 지낼 수 있는 곳이니까. 캄보디아 결혼 이주민 남편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테니 우리말을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되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가정들처럼 캄보디아에도 자주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스레이 나잇 씨



3 스레이나잇 친정부모님과 6개월 된 손녀.



조금 더 기억이, 조금 더 자주

멘 랑(Men Lang)

2007년 결혼 이후 바쁜 일상을 살다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첫 친정나들이를 했던 멘 랑 씨 가족. 이 가족의 이야기 역시 멘 랑 씨의 남편 민완기 씨에게 들을 수 있었다. 가족 모두가 가는 거라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적응을 잘 못하면 어쩌는지 염려했던 마음이 무색하리만큼 잘 어울리고 잘 지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가서 새로 짓는 친정집 공사도 도와드리고 잔치도 거들어드렸다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조금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반갑고 좋았다고도 했다. 특히 장모님의 60세 생신잔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전했다. 멘 랑 씨는 한국에 시집오기 전 한국어 기초를 배우고 와서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지만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그걸 설명해주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럴테면 ‘배’같은 단어는 사람 몸에 있는 배도 있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걸 이해시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아직 자유롭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 모든 게 우리말로만 되어 있다 보니 더욱 그렇고,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친정나들이 한 번 하는 게 여러모로 쉬운 일은 아니기에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4 멘랑 씨와 친정가족. 5 멘랑 씨 가족들이 홀트 방문단을 환영하며 음식 마련해 주었다.

멘 랑 씨



“나눔은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가장 쉬워집니다.”

만삭이 되도록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출산을 하러 오는 산모들을 쉽게 받아주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이제이스엠비 산부인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 아름답(미혼모자사실)의 산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답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과 아이제이스엠비 산부인과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평범하기에 더 소중했던 첫 인연

여름이라 하기엔 이른 계절이다 싶으면서도 한 낮의 기온이 28도를 넘나드는 5월의 오늘은 아름답 산모들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출산일을 한두 달 남긴 산모들과 출산 후 검사를 받는 산모들을 따라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막 점심시간이 끝나고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많은 사람들로 분주하지만 친근하게 맞아주는 의료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아름답 산모들의 편안한 표정에서 아이제이스엠비 임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플과 아이제이스엠비 산부인과의 인연은 전화 한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 산모들에게 산부인과의 도움 없이 건강 한 출산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하기에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름답 가까이 있는 여러 산부인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이제이스엠비 산부인과는 흔쾌히 산모들의 정기검진을 맡아 주겠다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09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윤병선 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과 아름답은 그 인연의 깊이를 나날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후원자에서 이제는 한 가족으로

윤병선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 진료실로 들어서자 원장님께서 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요. 진짜 하는 일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도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없던 저희에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요.”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아이제이스엠비 산부인과에서는 아름답 아기들에게 필요한 분유며 기저귀 용품 구입비로 매달 후원금을 보내올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아름플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름답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희망의 공간이자 쉼터인 미혼모자사실입니다.
02-334-4614
www.holtarum.co.kr



아름플 산모에게 따뜻한 진료를 해주시는 윤병선 원장님.

보낼 수 없는 산모들이 가장 위축될 수 있는 연말연시나 명절이 되면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한보따리 가득 간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 윤 원장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서 아름답의 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린 산모들의 용기와 인내에 보람을 느껴

윤 원장님께서선 처음 아름답의 산모들을 대할 때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당사자뿐 아니라 책임감 없이 임신을 시키고 산모를 방치한 남성들에게 더 화가 난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만남을 더할수록 그들이 갖는 순수함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출산을 선택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처음엔 선입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이를 키우던 입양을 보내던 낯으려는 용기 자체가 기록하게 여겨집니다. 또 미혼이기에 되도록 자연분만을 유도하는데 어린 산모들이 의외로 진통을 잘 견뎌 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역시 보람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일반 산모들에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이 아름답 산모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김 원장님은 임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태도 하나도 소홀하지 않도록 나눔과 배려를 당

부한다고 합니다. 산모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독이고 위로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출산 후 산모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로서 산모들의 산후에 대한 우려로 좀 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에서 잘 교육하고 계시지만 필요하다면 출산 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열리고 있는 산모교실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나눔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가장 쉬워져

윤 원장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눔과 후원이 일상이 되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조차 잊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눔과 후원은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가장 쉬워지는 역설을 담고 있는 신기한 일입니다. 아이제이스엠비 산부인과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처럼 나눔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되지 않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의 모든 아이들과 미혼엄마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Holt**

글 _신혜진 · 재능기부봉사자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지원사업에 협력해 주시는 전국 산부인과 및 종합병원, 여성병원과 한방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날 햇볕보다 사랑으로 더 뜨거운 나눔 사랑, 특별한 후원

따르릉 전화 한마디, 당동 게시판에 남겨진 한 줄, 똑똑 통장에 새겨진 이름 석 자. 각기 각 다른 방법이지만 “후원합니다!” 공통어를 전하는 분들... 긴 대화도 긴 문장도 나누지 못하고 얼굴 한번 뵈지도 못한 분들이지만 그 한 마디에, 그 한 줄에, 그 이름 석 자에 따뜻한 마음이 옮겨옵니다. “고맙습니다!” <3월~5월> 봄날 따사로운 햇볕처럼 특별한 후원을 나눠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더불어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람이의 첫 생일♡



동우의 100일 기념♡

우리 아이 첫 돌, 첫 생일을 나눕니다.

“첫(First) 생일, 소중하게 기억되는 처음!” 처음 마주했을 때의 설렘과 감사함으로 우리 아기의 첫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아기의 축복된 첫 생일을 기억하다 문득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첫 생일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아직은 모르는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기와 같은 사랑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특별한 후원’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내 아이의 첫 소중함을 그 아이들과 나누자고요. 우리 아이처럼 사랑을 받고 가정을 가져야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해 오늘 우리아이 ‘첫 돌’기념 후원을 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홀트의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특별한 기부, 첫 돌 후원자님 사연 중 -



‘첫 백일, 첫 돌’ 특별한 후원

- 김태규 ♥ 박지영 후원자님의 자녀 나율이
_2012년 5월 20일
- 윤창현 ♥ 서여운 후원자님의 자녀 준영이
_2012년 5월 29일

사랑하는 당신과 하나가 된 결혼기념일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평생을 기약하던 그 설렘과 떨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로만 마주보기 보다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우리 부부입니다. 같이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미약하지만 밝은 빛을 비추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의 축복된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만 행복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눔으로 더욱 커지는 사랑이 우리의 날을 더욱 풍요롭게 하네요.

- 특별한 기부, 결혼기념일 후원자님 사연 중 -

- '특별한 후원' 문의
02)331-7073(후원팀) 또는 sponsor@holt.or.kr
- '특별한 후원' 방법
www.holt.or.kr ▶ 후원신청 ▶ 특별한 후원(정기 또는 일시)

나만의 특별한 날을 나눕니다.(별★의 별 후원)

- 송유경 후원자님 2012년 3월 23일 예쁜 딸 효린이의 200일 기념으로 후원 합니다.
- 오재영 후원자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후원합니다.
- 황소영 후원자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 송연자 후원자님 보너스가 조금 생겨서 후원합니다.
- 이숙민 후원자님 4월 10일 "행복한 날"입니다.
- 김민수 후원자님 2012년 3월21일 "첫 월급"을 받았습니니다. 나눔에 동참합니다.
- 유정현 후원자님 5월 14일 백수가 된 날입니다. ^^

남윤식·전혜경 부부
5월 5일, 결혼 4주년 기념
특별한 후원



김상현·신정아 부부
5월 9일, 결혼 2주년 기념
특별한 후원



'결혼기념일' 특별한 후원

● 오진환 ♥ 박영수 후원자님 :
2012년 4월 5일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내 박영수님께서 남편 오진환님께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우리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의미 있게 홀트 아이들에게 기부 했어~ 매년 기부할 수 있게 잘살자~"

‘으랏차차 다시 뛰자 인생 2막!’

하남실버인력뱅크

신노년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하남실버인력뱅크

노인은 신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의 두려움, 경제활동, 자녀양육과 은퇴에 따른 ‘역할’ 상실,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른 ‘외로움’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및 노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는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설치한 부설기관 「하남실버인력뱅크」가 있다. 하남실버인력뱅크는 은퇴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로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신노년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노인교육, 노인자원봉사, 노인일자리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아사업으로 다시 뛰는 어르신들

고등학교 영어교사 은퇴 후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에게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어 작년 말에 실버인력뱅크의 동화구연가 양성교육에 참석했던 한○○ 어르신은 올해 동화구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말이면 부인과 교구를 제작하고 충실한 수업을 위해 연습을 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신다. 아동지도에 대한 열정과 차별화 수업 진행에 대한 관심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영어로 동화를 들려주는데, 특히나 어린이집에는 남자 직원이 없어 할아버지 구연가로 매우 인기가 많다.

대기업 간부였던 권○○ 어르신은 은퇴 후 실버인력뱅크 일자리아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보육교실 바둑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일자리아사업 참여 전에는 자주 병치레를 하였던

데, 사업에 참여하면서는 아플 틈이 없고 감기 기운이 왔다가도 긴장을 해서인지 가볍게 앓는 정도란다.

아이들이 때로는 싸우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귀엽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니 자신이 늦게나마 성숙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겸손의 웃음을 지으신다. 아동지도 경험이 없어 긴장되긴 했으나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동영상 활용하기도 하며 아이들과 함께하니 방과후 보육교실 수업을 통해 보람과 생활의 활력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하남실버인력뱅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인교육과 건강, 경제문제, 역할, 소외감 등의 노인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아사업」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세대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동화구연가 파견사업과 세대통합 일자리아사업에는 동요지도, 바둑지도, 한지지도 활동이 있다. 어르신들은 이런 노인 일자리아사업을 통하여 은퇴 전의 삶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잠재된 소질과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더불어 핵가족시대에 살고 있는 아동들과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자의 부재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에게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귀한 기회이기도 하다.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하남실버인력뱅크 어르신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현대 한국사 격동기를 모두 거치며 현재의 경제발전을 일군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기능과 구성원의 변화,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1 손사랑나눔이 봉사단



2 동화구연가 활동
3 바둑강사 활동

에서 대체로 소외된 계층이 되고 있다. 하남실버인력뱅크는 이러한 노인의 자존감 고취와 소속감 지원을 위하여 잠재적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재능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손사랑나눔이' 뜨개질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단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소박한 사명을 가진 61세에서 77세의 어르신 10명이 주축이 되어 2011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단원들은 한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화요일이면 복지관에 나와 모자뜨기 기본코스부터 고급 코스까지 배우고, 집에서 열심히 모자를 떠 1인당 1주에 5개 이상을 만들어 2012년 1월까지 총 1,000개의 모자를 제작한 후 깨끗이 세탁하여 '세이브더칠드런'에 제출하기도 했다.

봉사단원들은 모자를 뜨려면 코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하므로 잡념이 없어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뿐 아니라, TV를 보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여유가 없다며 작은 노력으로 소중한

생명을 건진다는 생각에 살아있음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감사하며 봉사활동 참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손사랑나눔이'는 모자뜨기에 소요되는 실 구입을 위해 자발적 후원자가 되어 1인당 월 1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더 많은 실 마련을 위해 이웃에게 후원 참여를 안내하는 등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2012년 2월 모자뜨기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생활용품인 수세미와 덧신, 카디건 등을 떠서 복지관 바자회 판매 물품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복지관의 후원금 모금에도 참여하기로 준비 중이다. 하남실버인력뱅크와 함께하는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역문제는 물론 글로벌 시대의 문제해결에 봉사자와 후원자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며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원이 되고자 하는 신노년 모델을 제시하며 창조적 삶을 만들고 있는 멋진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http://www.hnslb.or.kr>

글 _백상옥 팀장 · 하남실버인력뱅크

● 입양의 날 기념식 ●

서울사무소

제7회 입양의 날인 5월 11일, GSE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입양 공로자 28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강원사무소



강원도가 주최하고 홀트강원사무소가 주관한 제 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5월 11일 국립춘천 박물관에서 열렸으며, 명동에서 춘천시민 대상으로 입양의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후원해 주신 (주)제이비코리아(대표이사:권혁만), 홀트강원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경남사무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5일, 창원용지공원에서 국내입양활성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 및 후원활동을 펼쳤다.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홀트아동복지회가 주관 제 7회 입양의 날 기념식 및 입양가족 어울마당이 5월 11일 부산 롯데 갤러리وم 웨딩홀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16일에는 현대백화점의 후원으로 "입양가족과 함께 하는 입양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울산사무소

울산사무소는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 "애니 어그럼을 통한 부모 자녀 행복 나누기" 특강 개최 및 홀플러스 울산점 인근거리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사무소

"제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인천광역시 주최 홀트아동복지회 주관으로 5월 15일 오후 3시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국내입양활성화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10명의 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전주영어원



5월 11일 전라북도지원, 전주영어원 주관으로 제 7회 입양의 날 행사를 전북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열고 '개정 입양특례법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충청사무소



충청사무소에서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광역시 주최로 입양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5월 19일)를 개최하였다.

● 사회공헌 ●

이마트협력업체 후원금 전달



3월 27일 (주)이마트에서 진행된 '사랑나눔행사'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수산물 11개 협력업체 (견우푸드, 고려수산, 동아수산, 동양식품, 만전식품, 바다건해, 신성건해, 옥포수산, 청해명가, 항진축산, 해우촌 등)는 (주)이마트와 함께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트로, 아동복지기금으로 5천만 원 후원



이테리 명품 브랜드 에트로(ETRO)는 3월 15일 한국 런칭 20주년을 기념하여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감사와 나눔"이라는 주제로 자선 패션쇼를 열고 우리회에 5천만 원의 아동복지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말리홀트 이사장, 민경태 회장, 선 홍보대사가 참석했다.

● 본부 ●

홀트드림센터 개소식



캄보디아의 홀트드림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4월 9일 개소식을 열었다. 트라피앙 안찬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한 홀트드림센터가 새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이날 센터 아동 10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난 1년의 발자취를 추억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일구어 갈 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사회부 초청으로 장관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회와 사회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양국 사회복지발전 방향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물조물 딱딱 이영란의 흠늬이' 후원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100여 명은 NGO단체 '홀로하'(대표:임민택)와 미래기획, 위플레이 후

원으로 4월 5일 성남시아트센터에서 '오물조물 딱딱 이영란의 휴놀이'에 초청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윤택 홍보대사, 개그우먼 김지선,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들도 참여해 주었다.

2012 노르웨이 모국방문단



홀트를 통해 노르웨이로 입양 간 성장입양인 31명과 양부모 등을 포함 총 71명으로 구성된 2012 노르웨이 모국방문단이 3월 31일부터 4월 1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여정과 모국체험을 마치고 돌아갔다.

4월 6일, 캄보디아 다문화가족 11명

친정나들이 출발

'2012 코리아그랜드세일 기념 다문화가족돕기 자선 바자회'를 주최한 (주)롯데백화점 후원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방문단이 4월 6일 고양인 캄보디아로 출발했다. 우리회는 전국 3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1,700여 명의 결혼이민자를 돕고 있다.

상반기 대바자 성황리에 마쳐

2012년도 "저소득가정지원을 위한 나눔 바자"가 4월 27일 본부 사옥에서 개최되어 1억 원이 모금되었다.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주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우리은행 및 개인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 입양가족 사진 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주)씨앤엠이 후원한 2012 입양가족사진·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이 5월 18일 비엔빛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 지방사무소 ●

경남사무소,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및 위탁모 상봉

5월 18일, 모국방문단으로 온 William P.Coll과 Robert&Megan Coll 가족은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위탁모와 가족들과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

대구사무소, 입양홍보활동 펼쳐

제 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 열린 기념 행사장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과 장애아동 국내입양 실태, 아동 입양 현황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장애아동재활바우처 서비스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사무소 (주)미래종합유통 정기후원



홀트 보호아동 양육과 의료 돕기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주)미래종합유통 이대감사장체 초량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이웃(사이)패를 전달했다.

부천사무소, 한사랑회 부천지역모임 및

부모교육 실시



4월 28일, 한사랑회 부천지역모임을 일산복지타운에서 갖고, 홀트기념관 견학과 홀트씨 부부의 묘소 참배, 그리고 조병국 원장님의 부모 특강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울산사무소, 울산한사랑회 모임 개최

울산한사랑회 6가족(총 19명)은 3월 26일 한자

리에 모여, 2011년 운영 결과 보고 및 2012년 운영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인천사무소 특수육아아동 입양을 위한

세미나 및 걷기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사무소는 5월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올림픽공원에서 "우리에게도 가족이 필요해요"란 주제로 장애아동 및 특수육아아동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관심 촉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걷기대회를 진행하였다.

전북사무소, 한사랑회 소식

전북지역 한사랑회 가족들 총 8가정(25명)이 3월 31일 전주 완산구 평화동 소재 Play time에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충청사무소, 위탁모 आयुही

5월 23일 위탁모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탁모간의 단합을 위해 '위탁모 आयुही'를 실시하였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Johnson&Johnson 아시아태평양

각국 대표단 봉사활동



2006년부터 홀트타운 가족을 위한 다양한 후원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한국 존슨 앤 존슨)은 5월 9일 아시아태평양 각국 대표 및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 공연관람과 장애가족의 산책 등의 봉사를 펼쳤다.

● **홀트학교** ●

에그리나오케스트라 창단



홀트학교는 장애학생들의 재활과 재능 발전을 돕기 위해 4월 21일 에그리나(사랑하는 우리사 이 옛말) 오케스트라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광성나눔 앙상블(대표:이현주)과 현악기 공방 김문태 대표가 참석하여 협약서를 나누었으며, 김문태 대표는 바이올린 6대와 활잡이 30개를 추가로 기증해주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개관 8주년과 5월애 행복나눔주간



복지관 개관 8주년과 가정의 달 5월을 기념하여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5월애 행복나눔주간'을 개최하고, 다양한 행사 및 저소득장애인 돕기 모금행사를 펼쳤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3월 5일 복지관 강당에서는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이마트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복장터' 바자회



생활용품, 가전제품, 문구 등을 이마트 하남점에서 후원받아 '이마트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복장터' 바자회를 4월 27일 실시하였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대한생명과 함께하는 다문화요리경연대회 개최



대한생명의 후원으로 4월 30일 다문화 이주여성 22명, 총 6개 팀이 참여한 다문화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1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세울림'교육활동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장애인식개선 '세울림'교육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시내 총 34개교의 초, 중, 고등학교 92학급 학생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혼모자시설** ●

고운뜰, 2012년 양육도 쌀 지원 사업

고운뜰에서는 출산 후 퇴소하여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미혼모자가정 20곳을 선정하여 쌀을 전달했다.

사랑들, 미즈맘과 함께하는 알뜰장터



대구 미즈맘여성병원에서 '미혼모&의료문제아 동등기 자선바자회'를 5월 12일 열고 수익금 전액을 5월 17일 사랑들에 전달했다.

아름들, 코레일사회봉사단 후원으로 새롭게 단장

새롭게 단장

코레일사회봉사단의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옥상 빨래건조대와 차양막이 설치되고, 생활방과 프로그램실 도배로 아름들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아침들, 학생미혼모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아침들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정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신한 학생미혼모들도 아침들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날 축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5월 5일 마포구청에서 펼쳐진 어린이날 축제에서 체험부스를 열고,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 딸기차 만들기, 천연 만지락 양초 만들기 등을 진행,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펼쳤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의 교복니눔

동대구 농협의 후원으로 지역사회 저소득 다문화 가정 8명의 학생들에게 사랑의 교복을 전달

하였다. 또한 같은 날 다문화가정 돕기를 위한 알뜰바자회 나눔 장터를 두산문화센터 로비에서 개최했다. 모든 수익금은 다문화가정을 돕는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의 달 행사 “오! 해피 패밀리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5월 19일 토요일 센터 앞마당에서 심리검사, 다양한 친환경 체험, 놀이 활동 등 다섯 가지 놀이부스를 운영하여 가족들의 친밀감 및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5월 15일 서울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2012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이웃·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 홀트아동발달지원센터 ●

개원식 및 홀트달구벌후원회 발대식



홀트아동발달지원센터 개원식이 5월 4일 지역사회 관계자 및 우리회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날 홀트달구벌후원회 발대식도 개최되었다.

● 전주영아원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제90회 어린이날과 제 7회 입양의 날을 맞아 본원 양치식 사무국장과 양은실 상담원이 요보호 아동들의 안전·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각각 수상 하였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소리놀이터

4월 20일 소리를 테마로 부모 참여수업을 진행, 음악을 통해 부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중동어린이집, 목장 견학

착한반 어린이들은 5월 22일, 따뜻한 봄날 모산 목장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송아지에게 우유먹이기, 젖소 젖도 직접 짜 보고, 트랙터도 타고,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도 하였다.

홀트어린이집, 현장학습

5월 17일 유치반은 <이영란의 흠놀이 오물조물 딱딱>에 다녀왔다. 맨발로 흙을 밟으며 그림도 그리고, 찰흙미끄러움도 타는 등 흙을 마음껏 만지고 느끼며 즐거운 체험이었다.

● 전국후원회 ●

2012년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

이사회 회의개회



2012년도 전국후원회 이사회 회의가 4월 13일 충북 청원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전국 17개 지역 후원회 회장단과 회원들이 모여 2012년 한해를 이끌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안건을 협의하였다.

강원후원회, 강원후원회 다문화,

임양아동 돌, 백일잔치 후원

강원후원회(회장:신명숙)는 4월 25일 홀트회관 1층 어린이도서관에서 필리핀 가정 함귀내(여) 아동, 캄보디아 가정 최하늘(남)아동에게 전통 돌잔치를 열어 주었다.

광주후원회, 자연사랑·푸른환경 캠페인 다녀와



홀트광주후원회(회장:전항자)는 5월 17일 증심사 입구 도로변과 주차장, 쉼터 주변을 청소하고 등산객들에게 쓰레기 가져가기 등 환경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후원회, 전주영아원 아동과 동물원 나들이



전북후원회(회장:이화정) 8명은 5월 7일 평소 나들이가 쉽지 않은 전주영아원 아동들을 위해 전주동물원으로 소풍을 다녀왔다.

2012 원복원부산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선정

부산시민도서관이 범시민 독서생활화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원복원부산 운동’의 올해 도서로 조병국 전 홀트의원 원장(현 홀트일산복지재단 이사)의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가 선정되었다.



동명대 언어치료학전공, 후원금 전달 감사합니다



동명대 언어치료학과(학과장:송윤경교수) 재학생들이 찾아와 교내 축제기간동안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이라며 100만 원을 후원해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의 기특한 활동과 나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역사회 아이들의 언어치료를 위해 후원과 관심을 나눠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언어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백수철 사회복지사

홀트바자회를 통해 1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오랫동안 펼쳐 홀트바자회가 올하는 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4월 27일 '저소득가정지원을 위한 나눔행사' 이름으로 열린 홀트 상반기 바자회에서 기금 1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여러 후원업체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년 물품후원을 요청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홀트 바자회'만은 도와야죠'라며 매년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후원사에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눔바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팀 정성훈 사회복지사

본부사옥이 완공되어 이전합니다

지역균형재개발로 이전했던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사옥(서울사무소)이 재건축 완공되어 7월 말 이전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임직원들은 1960년대부터 복지 사업을 펼쳤던 그곳에서 소외된 아동과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되새기며 헌신하는 사회복지자를 펼치겠습니다.

위치 : 서울 마포구 합정로 19번지



홀트의 후원금은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행복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 아동양육 후원** 부모가 없는 미숙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장 학 후 원**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교육비, 국외 입양인 모국연수 지원
- 국내아동 후원** 결식아동, 미혼양육모 가정 양육비, 의료비 지원
- 국외아동 후원** 국내 다문화 가정아동 및 북한아동, 빈곤국 아동 지원



후원신청 안내

정기후원 방법



자동이체(CMS)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매월 25일 통장(신용카드)에서 약정후원금이 자동이체 됩니다.



신용카드 · 핸드폰 포인트 기부

회원가입·안내

www.holt.or.kr / 02-331-7073-4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체의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일시후원 방법



사랑나눔상자

가족, 친구와 함께 또는 사무실, 학교에 비치해 나눔을 시작해보세요.



사이

수익의 일부를 후원하는 사업장 및 기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한 기부

돌, 결혼식, 취업 등 기쁘고 좋은 날을 더 뜻깊게 '나눔'으로 남겨보세요. 기념패를 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479037-01-000461
예금주 | 홀트아동복지회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주소 | _____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4-70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팀



후원신청 엽서

후원신청 시 절취선을 잘라 봉합하신 뒤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사랑과 나눔, 사랑과 행복을 잇는 해외아동 결연후원을 시작합니다

뜨거운 시내에 모여 살던 빈민들이 도시계획에 밀려나 정착하면서 생긴 이주민정착촌.
시내와 인접해 있지만 교통수단이 없이는 왕래할 수 없는 트라피앙 안찬지역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트라피앙 안찬의 아이들을 위해 홀트림센터가 보건, 영양, 교육, 정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역개발을 돕기 위해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트라피앙 안찬의 아이들과 함께 해 주세요.
어린이의 꿈을 키우고 지켜주는 일... 결연후원으로 시작하세요!



- **1:1 결연... 마음과 마음을 나눕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던 아이와 그 아이의 키다리 아저씨가 된 당신은 이제 서로에게 '그 어떤 의미'가 됩니다.
- **월 3만 원... 아이를 꿈꾸게 합니다**
월 3만 원으로 아이는 배고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 **결연아동... 1:1결연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 및 의료 보건위생교육 건강검진영양지원	영양지원 급식
교육 및 보호 방과후 교실 청소년주말학교	정서지원 아동 및 가족상담

* 결연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결연아동에게 편지나, 선물, 직접 만날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연후원 신청 : 2012년 8월 결연후원 페이지가 오픈합니다.

www.holt.or.kr ▶ 후원신청 ▶ 해외후원 ▶ 아동결연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결연후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연후원 문의 : 02-331-7075, sponsor@holt.or.kr

etromilano.co.kr 02.511.2573

ETRO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기업입니다.
후원상담 1588-7501, www.holt.or.kr



ETRO